목포시, 일본 관광객 유치 팔 걷었다

지자체 유일 한·일 관광진흥협 참가
근대문화유적 관광자원 집중 홍보
명소 탐방·미식관광 테마 교류 논의

목포시가 다양한 근대역사 관광자원을 매개로 일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일본 시가현 오쓰시에서 열린 '2025 한·일 관광진흥협의회'에 참가해 일본 관광시장을 겨냥한 현장 중심의 글로벌 홍보마케팅을 전개했다.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국토교통성을 주무 부처로, 한국관광공사(KTO), 일본정부관광국(JNTO), 양국 여행업협회 및 관광·항공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는 국제회의다. 1986년 이후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양국 간 우호 증진과 관광교류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광교류의 지속적 확대 ▲지역관광 활성화 ▲미래세대 교류 증진 ▲관광산업 다양화 ▲장거리 관광객 유치 협력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협의회에서는 양국 정부의 관광정책 발표와 함께 한·일 관광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최근 일본 오쓰시에서 열린 '2025 한·일 관광진흥협의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시는 개최지인 일본 시가현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로 참가해 비교우위를 지닌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전략을 소개했다. 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근대문화유적 등 일본과의 역사적 인연을 간직한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홍보를 펼쳤다.

이와 함께 올해 국제남도미식산업박람회 개최지로서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 가치를 강조해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박인지 목포시 관광과장은 "일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근대역사 관광과 명소 탐방, 미식관광 등 다양한 테마의 교류를 통해 'K-관광 목포'를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내년 12월 한국에서 개최될 '2026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를 목포로 유치해, 한·일 관광교류 확대의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신안소방 암태면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장 개소

신안소방서가 지난 24일 암태면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장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과 김문수·최미숙 전라남도의원, 이상주·최춘옥 신안군의원,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지역 사회단체장,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이번에 조성된 암태면 교육훈련장은 의용소방대원들의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대응능력 향상과 실전 중심 교육을 위해 활용될 공간으로 대원들은 훈련장에서 기초훈련과 장비 조작 등 각종 숙달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안소방서 고상민 서장은 "암태면 교육훈련장 개소는 지역 의용소방대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더욱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진도 공용터미널 냉온풍기 설치 등 시설 개선

진도 공용터미널.

진도군이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후화된 '진도 공용터미널' 시설개선 공사를 최근 완료했다.

진도군은 그동안 공용터미널 건물의 외벽을 보강하고, 오래된 창호를 교체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천장에 사용된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고 냉난방이 가능한 냉온풍기를 설치해 군민과 관광객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진도군은 지난해 7월부터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을 시행하고 있으며, 진도여객은 이번 달부터 '저상형 전기버스' 1대를 도입해 운행을 시작했다.

'저상형 전기버스'는 일반 이용객은 물론 노인과 교통약자의 승하차 편의를 높인 차량으로, 진도군은 군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저상형 전기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마저 군민의 삶의 질이라는 생각으로 시설개선에 힘썼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일상이 더 편안해질 때까지 교통 복지와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암군 혁신정책 페스티벌

'어르신 소통카페' 금상
'엄마! 뭣이 불편해요' 은상

영암군이 '정책을 팝니다, 미래를 사세요'를 구호로 '2025년 혁신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지난 17일 영암청소년센터에서 열린 행사는 군민이 생활에서 경험한 문제를 기반으로 정책을 발굴·발표해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1개 읍·면 대표가 제안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 발표돼 현장투표·심사로 우수 정책이 선정됐다.

금상은 미암면 '어르신 협동조합 기반 소통카페 운영' 정책이 수상했다. 은상에는 덕진면 '엄마! 뭣이 불편해요? 뚝딱이가 고쳐드릴게요', 동상은 도포면 '마음 놓고 농사만 짓는 환경'이 선정됐다.

행사에는 전국 군 단위 최초의 '녹서'(green paper) 전달식도 진행됐다. 녹서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정책 초안 문서다. 책에는 영암 미래 발전을 위한 질문 1053건이 담겼고 군은 질문 하나하나에 좋은 정책으로 호응할 방침이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해남군, 권익위 종합 청렴도 평가 첫 1등급

청렴 캠페인·붐업 운동 등 효과

해남군이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해남군이 1등급을 받은 것은 200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시행 이후 처음이다. 〈사진〉

종합 청렴도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7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청렴시책 추진 실적을 반영한 청렴노력도와 민원인 대상 설문인 청렴체감도, 공직자의 비위·부패행위 발생 시 감점 등을 종합해 산정된다.

해남군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공직자 내부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군민들의 청렴 체감도를 꾸준히 향상시켜 왔다.

특히 외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조사에서 부패인식이나 경험이 있는지 묻는 청렴 체감도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고,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청렴한 페이지' 등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명절 청렴 캠페인, 청렴 붐업(boom-up) 운동, 전 공직자 청렴 서약식 등을 통해 청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청렴 골든벨, 청렴 라이브 콘서트, 청렴 뮤지컬 등 특색있는 청렴교육도 추진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영암군미래교육재단 초교 보급 한자교재 발간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이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한자교재 '왕인 한자 탐험대'를 발간했다.

'영암편', '교과한자편', '생활한자편' 등 총 3편으로 구성된 이 교재는 영암의 역사적 인물인 왕인 박사의 발자취를 따라 학생들이 한자 학습을 하며 지역의 전통과 특색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한 맞춤형 교육자료이다.

재단은 초등학생들의 문해력 신장, 애향심 고취, 인문교육 활성화 등을 목표로 올해 초 영암교육지원청 협조를 받아 집필 위원을 구성하고 교재를 개발했다.

기초 문해력 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3~4학년의 눈높이에 맞췄지만, 각 교육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로 학습자를 선정해 사용할 수 있다.

한자 탐험대는 내년에 영암 초등학교에 보급되고, 구체적 활용 계획도 안내된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